21세 김시우 '제 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우승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에서 미국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김시우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대회 우승자 제이슨 데이. /연합뉴스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에서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시우가 갤러리들에게 장갑을 던져주고 있다. /연합뉴스

THE PLAYERS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7번홀 파 기록 '21억 역전승'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은 '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만 21세의 '영건' 김시우가 통산 2승을 달성했다.

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3개를 쳐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친 김시우는 2위 이안 폴터(잉글랜드)와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상금 189만 달러(약 21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PGA 투어 통산 2승째를 거두면서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시우는 2004년 애덤 스콧(호주)이 세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23세)을 경신하면서 PGA 투어의 '20대 젊은 피'로서의 존재감도 과시했다.

2014~2015년 PGA의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해 PGA 투어에 오른 김시우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에 이어 PGA 투어에서 우승한 5번째 한국인 선수였다. 당시 한국 선수 중 최연소 우승이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그룹에 2타 뒤진 단독 4위에 올랐던 김시우는 4라운드에서 착실히 타수를 줄여나갔다.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김시우 프로필

- 출생 1995년 6월28일
- 신장/체중 180cm/85kg
- 소속 CJ오쇼핑 ● 학력 연세대 체육교육과
- 주요 경력
  - 2012년 PGA투어 퀄리파잉스쿨 최연소 합격
  - 2013년 PGA투어 입성
  - 2015년 PGA 웹닷컴투어 스톤브래클래식 우승 PGA투어 뉴스센터넬오픈 공동2위
  - 2016년 PGA투어 바바솔 챔피언십 2위
  - 2016년 PGA투어 윈덤 챔피언십 우승 (대회 사상 두번째 최연소 우승)
  - 2017년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

연합뉴스

김시우는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대회 최종일을 시작했다.

반면 전날까지 공동 선두였던 카일 스탠리(미국)와 J.B 홈스(미국)는 1번홀부터 보기를 범하면서 스스로 무너져갔다.

결국 김시우는 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고, 9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로 올라온 폴터와 격차를 2타 차로 벌렸다. 이후 김시우는 안정적으로 파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2위 폴터는 1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1타 차로 격차를 좁혔지만, 다음 홀인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3위 우스트히즌도 11번홀에서 이글을 잡으면서 김시우에 2타 차로 따라붙었지만, 13번홀(파3)의 보기로 기세가 누그러졌다.

김시우는 연못 속에 섬처럼 자리 잡은 솥뚜껑 그린으로 악명 높은 17번홀(파3)도 파로 막으면서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18번홀(파4)도 파로 막으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는 지난 2011년 최경주 이후 두 번째다.

우승 직후 김시우는 "우승을 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승열은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면서 최종합계 이븐파 288타로 공동 22위에 올랐고, 강성훈은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공동 30위를 기록했다.

마스터스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는 3라운드에서 공동 7위에 올랐지만 이날 6오버파 78타로 부진해 공동 30위로 내려앉았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세계 남자 골프 '빅3' 중에선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존슨은 이날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순위를 32계단이나 끌어올린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시우, 세계 28위로 껑충…47계단 올라

더스틴 존슨 1위 유지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세계랭킹을 20위권으로 끌어 올렸다.

김시우는 15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28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75위에서 47계단 뛰어올랐다.

김시우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통산 2승째를 수확했다.

왕정훈과 안병훈은 각각 57위, 58위에 랭크됐다.

'톱5'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더스틴 존슨(미국)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 2위를 유지했지만,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이 제이슨 데이(호주)를 밀어내고 3위를 차지했다. 데이는 4위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에게 5위 자리를 내주고 6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신·구 해결사, 위기의 KIA를 구하라

타이거즈 전망대

2연속 1승2패…1~3선발 LG·4연승 두산과 6연전

10년 연속 두자리 홈런 최형우 타선의 핵심

백약이 무효…'응답없는' 김주찬 회복 관건

KIA의 '신·구 해결사'가 1위 수성의 책임을 맡는다.

올 시즌 위닝시리즈(3연전 2승1패) 행진 속에 승승장구했던 '호랑이 군단'은 지난주 kt와의 홈경기에 이어 SK와 원정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2승4패.

kt의 방패와 SK의 창에 고전한 KIA는 올 시즌 처음 연속 루징시리즈(3연전 1승2패)를 기록했다. 승보다는 패가 많았지만 일단 1.5게임 차로 1위는 지키고 있다.

한숨은 돌렸지만 홈 6연전을 앞둔 KIA에는 한숨 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주중 LG를 만나는 KIA는 주말에는 두산을 상대한다.

LG는 까다로운 2위다. 2017시즌 첫 대결은 루징 시리즈. 여기에 LG는 차우찬, 소사에 이어 돌아온 허프까지 앞세워 광주로 온다. 또 두산과의 앞선 첫 대결에서 위닝시리즈로 웃었던 KIA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시즌 초반과 달리 타선에 불을 붙인 두산은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위 타이틀 방어를 위해 신·구 해결사 최형우와 김주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 시즌 KIA의 해결사는 최형우다.

타격 페이스가 주춤한 것 같았지만 최형우는 지난 13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와 연장 11회 연타석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동점극에 이어 역전쇼를 연출했다. 최형우는 14일에도 솔로포를 추가해 10년 연속 10홈런을 채운 10번째 타자가 됐다. 0.358의 타율로 가장 많은 31타점을 생산한 최형우는 장타율(0.731), 2루타(16개), 루타(98루타), OPS(1.180)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큰 기복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최형우는 타선의 핵심이다. 최형우의 방망이는 개인 기록도 겨냥하고 있다. 앞으로 6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최형우는 통산 14번째 250홈런의 주인공이 된다. 통산 20번째 300 2루타에도 하나 남았다.

김주찬은 '해줘야 할' 선수다. 김주찬은 지난해 생애 첫 20홈런을 넘기면서 처음 100타점 고지도 넘었다. 2016시즌 해결사로 맹활약했던 김주찬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겨울 왼 허벅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은 빠른 회복세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즌을 출발했다. 하지만 좀처럼 실력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올 시즌 129타석에 선 김주찬은 21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데 그쳤다. 홈런 2개가 있지만 타점은 12점에 머물고 있다. 볼넷은 5개를 골라냈지만 삼진은 15차례나 당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다.

2017 시즌 '캡틴'이기도 한 김주찬의 부활을 위해 김기태 감독은 3번 타자로서 계속된 믿음을 보여줬지만 길어진 부진에 결국 타순 변경이라는 수를 썼다. 6번 자리로 내려 차분하게 타석에 서도록 했지만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왔고 지난 14일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예 1번 자리에 김주찬을 세웠다. 그러나 김 감독의 믿음에도 김주찬은 4타수 무안타로 응답하지 않았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날 두 번째 타석이었던 3회 좌측으로 깊숙하게 날린 타구가 SK 좌익수 김동엽의 글러브에 걸리면서 김주찬은 쓸쓸하게 벤치로 돌아와야 했다.

김주찬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타선의 집중력이 부쩍 떨어졌다. 김주찬 개인 600타점 카운트다운도 '-3'에 머물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기사회생한 김진우에 눈길이 쏠린다.

선발로 나선 두 경기에서 최악의 피칭을 하며 '선발 탈락' 위기에 몰렸던 김진우는 지난 10일 kt전에서 수비진들의 도움 속에 초반 위기를 넘고 6이닝 2실점으로 마침내 선발 역할을 해냈다. '마지막 기회'에서 반전을 이룬 김진우는 16일 선발로 출격해 LG의 좌완 차우찬과 맞대결을 벌인다.

빈틈 생긴 타선 탓에 고전 하고 있는 KIA가 난적들을 넘어 1위 수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t wiz 야구단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돼

KT는 kt wiz 야구단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KT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김진욱 kt 감독과 고영표, 심우준, 정성곤, 엄상백, 이진영, 유한준, 윤요섭, 김사연, 이상화, 이해창 등 대표선수 13명을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했다.

KT의 예비주자로 추천된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심사를 거쳐 최종 주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 감독과 선수들은 "kt wiz가 관중 수를 꾸준히 늘리며 프로구단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것은 물론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받은 이 순간까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마법 같은 순간들은 kt wiz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라며 "많은 팬분이 캠페인에 참여해 함께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선발 잔류 류현진 마지막 기회될까

19일 마이애미전 등판할 듯…커쇼 휴식일 고려 7일만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진 잔류를 위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류현진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등판 일정을 짤 때 류현진의 상황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만큼 류현진의 입지는 불안하다.

15일 현지 언론은 "다저스가 당분간 불규칙한 6선발 체제를 쓴다. 부상자 명단(DL)에서 해제되는 브랜던 매카시와 리치 힐이 16일과 17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등판하고, 현역 최고 투수 클레이턴 커쇼가 자신의 휴식일을 고려해 18일 샌프란시스코와 상대한다"며 "류현진은 19일 마이애미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다저스는 매카시와 힐, 커쇼의 등판 일정은 이미 공개했다. 부상자 매카시와 힐의 복귀전은 꽤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다.

1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등판한 커쇼가 4일 쉬고 18일에 등판하는 것이 임시 6선발 로테이션 일정의 핵심이다. 커쇼보다 하루 앞선 12일 등판한 류현진은 '에이스' 커쇼를 위해 등판을 미뤄야 한다. 결국, 류현진은 6일 쉬고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어깨 수술 후 처음으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하고, 지난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승리(5.1이닝 1실점)로 기세를 올리던 류현진은 12일 콜로라도에 4이닝 8피안타 10실점(5자책)으로 두들겨 맞았다.

다저스에 워낙 수준급 선발이 많다 보니 한 경기만 부진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에이스 커쇼와 '차세대 에이스'로 점찍은 훌리오 우리아스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최근 호투를 이어간 알렉스 우드는 선발로 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힐과 매카시, 경미한 부상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마에다 겐타, 류현진 등 4명이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류현진은 다음 등판이 유력한 19일 마이애미전에서 견고한 모습을 선보여야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

/연합뉴스